

「탐라별곡」에 표현된 제주목사의 책무와 그 시선

김새미오*

국문요약

본고는 정언유의 가사작품인 「탐라별곡」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본고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제주 관인문학의 관점에서 제주목사의 책무와 시선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었다. 제주 관인문학연구에 앞서 먼저 제주목사의 위치를 정리하였다. 제주목사는 다른 목과는 달리 수군방어사의 직책이 더해진 종2품 衙門의 관직이었다. 제주목사는 주로 유능한 무관을 임명되었다. 정언유는 문관이었다. 때문에 제주방어에 대한 두려운 책임감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언유는 제주순력을 통해서 제주의 실상을 파악하였고, 굶주린 제주백성들을 구휼하였다. 「탐라별곡」에서는 구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작품의 중심주제가 구휼임을 의미한다.

제주의 구휼정책은 인조 대에 실시되었던 출륙금지령 이후에 집중되었다. 제주구휼은 제주관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탐라별곡」에서는 제주 진상품인 굴과 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굴과 말을 거론한 것은 제주목사로서의 진상임무를 상기시킨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 제주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한 것이었다. 이는 제주의 진상품을 통해 백성의 피와 땀을 읽어낸 것이었다. 이런 제반사항은 모두 애민정신이라는 주제로 귀결된다.

마지막 부분은 선비의 풍류를 표현하였다. 이 부분의 해석을 위해 당시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제주에 왔던 관리들을 책임도 책임이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풍류라는 시각에서 제주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마지막 부분은 풍류를 즐기고, 이를 표현한 관인들의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제주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곳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정언유의 「탐라별곡」은 제주목사로서의 책무와 제주경관에 대한 풍류를 표현한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언유, 탐라별곡, 구휼, 목민관, 제주목사

* 제주문화원 강사

I. 들어가며

제주 고전문학작품을 인물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통상 “유배인-관인·도래인-지역문인”으로 나눈다. 이들 대부분은 한문학 자료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학을 벗어나면, 적지 않은 구비문학자료와 몇몇 가사작품이 전한다. 필자가 확인한 제주 관련 가사는 다음과 같다. 정언유의 「耽羅別曲」, 김춘택의 「別思美人曲」, 이방익의 「漂海歌」, 오진조의 「勸農歌」, 윤주일의 「瀛州仙景歌」, 李廷茂의 「達告辭」, 작가미상의 「도덕가」, 「瀛州十景歌」 등이 있다. 삭막한 제주고전자료에 있어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鄭彦儒(1687-1764)의 가사작품인 「耽羅別曲」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탐라별곡」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주목사였던 정언유의 작품을 통해 제주 목민관 문학의 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정언유는 1749년(영조 25) 10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였고, 1751년 8월까지 재직한 바 있다.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창석(1982)은 「탐라별곡」에 대한 해제는 물론 이본과 저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학계에 알렸다. 이 연구에서는 정언유의 제주목사시절의 작품임을 밝혔고,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도 논술했다. 이를 통해 장르상 서정가사·신분상 양반가사·주제상 교훈가사로 정리하였고, 실학사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규정하였다. 그의 연구는 「탐라별곡」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했기에 아직도 매우 유용하다. 윤창석의 뒤를 이어 윤치부(1995)는 「탐라별곡」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한 바 있다.

유정선(1999)은 환유가사의 정형적 구성으로 위민의식을 주제로 규정하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주순력의 과정에서 확대되어 가는 것에 주목하였다. 제주순력을 통한 분석은 서주연의 연구로 이어진다. 서주연(2014)은 순력과정의 확대라는 점에 주목하여 『탐라순력도』와의 공통점에 주목하였다. 이어 정언유와 이형상이 바라보았던 시각과 공간의식에 맞춰 논술했다. 그리고 「탐라별곡」의 내용을 통해 조화와 균형의 작가의식을 읽어내었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에서 덜 언급되었던 말미의 이질적인 내용을 고민하였다.

김남형(2008a; 2008b)은 정언유의 한시와 「탐라별곡」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문학세계를 규명하였다. 그는 정언유의 문집인 『迂軒集』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역시 작품 전반에 애민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문집을 통해 정언유의 생애를 정리하였고, 가사와 한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순희(2008)는 동산도서관 소장의 국문시가를 살피면서 「탐라별곡」의 이본 등을 언급하며 그 가치를 논술했다.

박수진(2013)은 문화지리적 공간의식으로 접근하여 제주에 관련한 보편적인 지역문화임을 밝혀, “중심부와는 동떨어진 소외된 주변부”라는 공간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는 제주라는 공간에 집중하여 「탐라별곡」을 바라본 것이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하자면, 창작시기는 제주목사시기, 주제는 애민의식으로 정리된다. 문헌학적 접근도 확인된다. 방법론적으로는 『탐라순력도』와의 비교, 문화공간으로서의 제주에 집중했다. 작가의식으로는 ‘균형’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아쉬운 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에서는 특히 애민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 애민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주목사의 위치와 제주 구휼정책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위민의식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 고전문학 작가는 “제주목민관 및 도래인-제주유배인-제주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유배문인에 대해서는 제법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목민관과 제주출신의 문인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탐라별곡」은 목사 정언유의 작품인 만큼, 당시 제주목사책무와 시선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 관인문학이라는 큰 축으로 확장될 수 있기에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체적으로 애민의식이라는 주제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후반부의 경관서술과 풍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 서주연은 작가의식으로 ‘균형’을 언급한 바는 있지만, 애민과 풍류와 의식적 균형으로 정리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제주라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제주를 바라보았던 외부인의 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는 결국 제주 관인문학이라는 큰 축을 고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주를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면, 「탐라별곡」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 관인문학과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의 입장에서 「탐라별곡」을 분석하고, 그 문학적 위치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다. 먼저 제주목사의 부임·순력·구휼 부분은 제주목사의 위치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기존연구에서 제주목사의 위치를 정리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목사의 위치를 정리해야 제주목민관의 역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주관인문학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 「탐라별곡」에 표현된 제주목사의 책무를 살펴보고, 관인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爲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목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목사가 갖는 책무를 통해 위민의식을 읽어내어야 할 것이다.

「탐라별곡」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짧은 분량이다. 책무의식과도 거리가 있다. 이 부분은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언유의 표현이 있기까지 제주를 어떤 관점으로 읽었는가 하는 시선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애민의식에서 거친 제주를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선경으로 이어지는 정언유의 의식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런 제반과정을 통해 제주관인 문학의 한 축으로서 「탐라별곡」의 위치를 살피고, 당시

관료들이 제주를 바라보는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제주목사의 위치

「탐라별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주목사라는 위치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제주목사는 다른 지역 목사와는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지리적으로 제주목은 다른 지역보다 넓었고, 거친 바다를 건너야만 했다. 특히 넓은 바다로 본토와는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었다.

당시 제주목사는 제주의 총책임자였다. 제주목사는 행정은 물론 군사적 책임이 있었다. 당시 제주는 군사 요충지였다. 때문에 제주목사에게는 군사업무와 책임이 강조되었고, 유능한 무관이 필요한 곳이었다. 실제 제주목사로 부임한 사람들 대부분은 무관이었다.

營門을 陸設하고 名位를 重히하여
節制使兼防禦로 一島를 彈壓이라
寧海에 차던 印綬 식 使君께 傳掌하고
行李를 收拾하여 嶺湖로 돌아와서
諭書를 압셔오고 重溟을 겨우 건너
禾北鎭 下碇하여[固碇鍾舟石] 東城門 도라드니
閭閻이 雜錯한데 四隅에 石牆이오
街路가 廣平한데 兩行에 楊柳로세
左右를 둘러보니 壯麗할 손 公廨로다.
殿牌에 肅拜하여 斧鉞을 손에 쥐니
公然한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정언유는 영조25년(1749)에 영해부사에서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탐라별곡」에서는 제주목사로 부임과정을 매우 빠른 호흡으로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주에 관한 기록에서 거친 바다에 대한 서술이 많지만, 「탐라별곡」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이는 문학적 리듬을 통해 바쁘게 제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주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주목사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자신이 맡은 지역을 순력하고, 외관의 성적을 평가하고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지방장관으로서 독자적인 행정이 가능했고, 병마절도사와 수군방어사를 겸임하였다. 즉 관찰사는 道 단위의 행정임무와 군사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목사는 관찰사 아래의 정3품 관직이었다. 목사의 주요업무는 호구관리, 貢賦 징수, 교육, 사송처리, 간단한 방어의 의무를 갖는다. 제

주목사 역시 기본적인 업무는 동일했다.

제주목사는 여타 지역의 목사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았다. 제주목사의 위치와 명칭은 수시로 변화하였다. 『제주관풍안』에 따르면, 고려시기에는 “耽羅令-按撫使-副使-牧使-都巡問使-宣撫使-都統使-萬戶兼牧使”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조선에 들어 고려시대 칭호였던 “만호 겸 목사”로 시작하여, “判牧事·都按撫使·防禦使·察理使·節制使” 등의 칭호가 더해졌다. 조선말기 제도 개편으로 郡守라는 명칭도 확인된다.¹⁾

명칭이 변화가 많은 이유는 행정체계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제주의 면적과 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 제주는 당시 전라도관찰사의 관할이었다. 그렇지만 관찰사의 힘이 직접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이에 실제 행정조치는 제주목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옛 기록에 이름은 목사이지만 실제로는 ‘옛날의 刺史, 지금의 감사’라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²⁾

여기에 당시 제주는 왜구들과 해적들이 종종 출몰하는 지역이었다. 기본적으로 변방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문관보다 능력있는 무관이 절실한 곳이었다. 다음은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의 기록이다.

이제 執義 奇虔으로 濟州牧使를 삼았는데, 言官을 外職에 補任하는 것은 진실로 前例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고쳐 제수하소서.³⁾

濟州는 멀리 海島에 있어서 防禦가 가장 艱요하므로, 牧使와 判官은 모두 武臣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근래에 인구가 점점 번성하고, 송사도 많아졌지만, 文·武를 交差하는 것으로 例로써 법을 삼는 것은 안됩니다. 청컨대 學識있고 吏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교차하고, 또 學行이 있는 자를 택하여서 教授로 임명하여 子弟를 訓誨케 하소서.⁴⁾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언관이었던 奇虔을 제주목사로 삼는 것에 대해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기사이다. 언관은 대표적인 문관직책이다. 제주목사로 부임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변방이어서 군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奇虔

1) 『增補耽羅誌』, 「濟州觀風案」. 「제주관풍안」인 경우 여러 『탐라지』등에서 확인되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담수계가 주관하여 만든 『증보탐라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탐라지』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만들어져 있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2) 『三邑教學資料集』, 「通房新創養堂節目」. 營之爲任, 可擬於古刺史今監司, 而非但一島之矜式, 錢穀甲兵, 眞所謂天外雄蕃也.

3) 『世宗實錄』 25년, 9월 27일조. 左正言尹沔啓: “今以執義奇虔爲濟州牧使, 以言官補外, 固無舊例, 請改除.” 上曰: “爾等慮後日之弊, 然矣. 自後注擬時, 予當三思.”

4) 『成宗實錄』 8년, 윤 2월 11일조. 吏曹啓: “濟州邈在海島, 防禦最繁, 牧使判官, 皆差武臣, 邇來生齒漸繁, 詞訟亦多, 然文武交差, 不可例以爲法, 請擇有學解有吏幹者交差, 又擇有學行者, 差教授, 訓誨子弟.” 從之.

은 안무사겸 제주목사로 부임하였고, 제주에서 예법을 밝혔던 名宦으로 일컬어진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제주목에도 문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인용문에서는 목사나 판관보다는 아래직책인 교수에 관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제주목사·제주판관, 교수는 모두 문관으로 부임할 수 있었다. 정언유는 언관 출신의 문관이었다.

인용문에 앞서 정언유는 자신이 맡은 제주목사의 직책을 “節制使兼防禦”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절제사와 방어사를 겸직하는 직책이었다. 절제사는 정3품의 무관직이고, 방어사는 종2품의 무관직이다. 제주에는 수군방어사가 있었던 지역이다. 수군방어사는 인조20년에 처음 설치된 이래 5명까지 두었다. 그야말로 해양방어의 핵심지역에 두었던 직책이었다.

조선 초기 제주목사는 다른 목과 같이 3품 衙門이었다. 이후 제주는 지리적 위치와 그 크기로 인해, 전라도 지역의 界首官의 위치로 대접하기도 하였다.⁵⁾ 여기에 군사적 지위를 더해지면서, 절제사와 방어사의 임무를 추가하여 종2품 아문으로 승격된 것이다.

전술했듯 정언유는 문관 출신 관료였다. 그가 「탐라별곡」에서 “節制使兼防禦”를 특기한 것은 문관이면서 주로 무관이 맡는 직책을 담당하게 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에 정언유는 “公然한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라고 하며 표현하였다. 이는 문관으로서 막중한 변방의 책임을 맡은 두려움이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제주방어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인 핵심임무였다.

III. 「탐라별곡」에 표현된 제주목사의 책무

1. 순력과 구휼

정언유의 「탐라별곡」은 제주목민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기술한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제주에 와서 정언유는 가장 먼저 한 것은 순력과 구휼이다.

延義閣 잠간 쉬여 巡歷길 밧비나서
海方도 둘러보며 風俗도 살펴보니
여염불스 우리 百姓 무삼일노 偏苦하여
衣食이 艱窘하니 興味が 잇슬손가

순력은 백성의 민정을 감사가 직접 살피는 것이다. 순력으로 인해 도리어 일반 백성들

5) 『太宗實錄』 18년, 4월 11일조. 禮曹上濟州文宣王釋奠祭儀及漢拏山祭儀. 釋奠儀依各道界首官例; 漢拏祭依羅州錦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

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⁶⁾ 백성들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책무였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제반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순력은 관리가 지역을 직접 돌아보며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순력은 기본적으로 관찰사의 임무였다. 목사의 일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제주는 전라도의 부속도서였고, 원칙적으로 전라도관찰사가 순력해야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전라도관찰사가 전라감영인 전주를 떠나 제주를 돌아볼 수는 없었다. 이에 제주지역 순력은 제주목사의 임무로 넘겨졌고, 이는 제주목사만의 중요한 책무였다. 승정원일기에는 “관관과 두 현의 수령을 출척시키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으니, 그가 사실 바로 감사입니다.”⁷⁾라고 하여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목사임을 밝혔다. 조선시대 목사로서 순력을 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였다. 이에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같은 유산이 전하며, 이익태의 『탐라십경도』 역시 제주순력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이보라, 2007: 69~117).

제주목사의 순력은 통상 10월에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농산물의 수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때였다. 제주목사는 제주성 남문인 定遠樓를 출발하여 동쪽을 향하였다. 당시 제주 왕래의 핵심지역인 화북진을 시작으로 제주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주성으로 돌아왔다. 정언유는 10월에 제주목사에 부임하였다. 따라서 정언유에게 제주순력은 제주에서의 첫 업무이자 가장 시급한 임무였다.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탐라별곡」에서는 순력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거의 없다. 이는 순력의 임무와 구휼의 임무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탐라별곡」에서도 제주 구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계획된 구성이다. 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언유가 언급한 제주도 구휼에 관련한 내용이다.

八陽足踏 겨우하야 薄田을 耕作하니
 자른 허미 적은 보습 辛苦히 매 갓구어
 五六月 盡力하며 西成을 바라더니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여
 惡風과 甚한 霖雨 히히마다 孔極하니
 田畝를 도라보면 兵馬로 짓발분 듯

6) 『牧民心書』, 「飭躬」. 韓祉爲監司, 未嘗有疾言怒色. 一日杖人不過二三, 而府內外肅然, 但聞履聲蹣蹣, 人人戰慄. 巡歷所至, 不待禁喧, 而寂然若無人, 令行禁止, 莫知其所以然也.

『牧民心書』, 「平賦」. 春秋巡歷, 其文宜簡, 而流連之費, 盡出於民庫. 夏臘腊肉, 其用不多, 而貢獻之價, 每徵於民庫, 天下其有是歟?

『牧民心書』, 「道路」. 今監司巡歷, 直用御路中黃之法. 又凡炬燎, 唯動駕有植炬. 今監司巡歷, 皆用植炬, (樹之路旁, 不令人執之曰植炬.) 此王章也. 設之者爲諂, 受之者爲僭, 不同因也.

7) 『承政院日記』, 「肅宗條」. 判官及兩縣宰黜陟之權, 在於牧使, 其實乃監司也.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짓찧난듯
 남은 이삭 주어너니 빈섬풀 뿐이로다
 ...(중략)...
 무엇으로 公債갸고 엇지구려 살어갈고
 거리거리 모단 飢民 駕輶 잡고 일는 말리
 설러울산 우리性命 나라해 달넛스니
 流民圖 왕겨다가 人君기신딘 알외고저

조선시대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형태이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백성들은 제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먹고 살고, 제주관아에 세금을 냈다. 조선전기 제주 사람들은 제주에서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를 떠날 수 있었다. 정부차원에서 바닷길을 막지 않았다. 실제 조선 전기의 기록을 보면, 정부차원의 제주구휼정책은 몇 번 없었다. 대신 조선 전기에는 제주유민에 대한 기억이 훨씬 많았다. 본토 사람들은 제주유민을 ‘두모악’·‘두모야지’ 등으로 불렀다. 이들은 본토의 해안가에서 미역과 같은 해산물 등을 채집하며 살았다. 심지어 해적질까지 서슴지 않았다. 조선전기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들을 본토에 그대로 살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제주로 쇄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김새미오, 2019: 101~127).

조선후기 들어 이런 양상이 점차 변하였다. 우선 임진란·병자란 등으로 본토의 형세가 녹녹치 않았다. 제주가 적에게 침략당할 경우 군대를 움직여 도움을 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제주가 자체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제주의 현실이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있어야 제주방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조대에 출륙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후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본토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출륙금지령은 제주방어 및 진상 등을 고려한 조선정부의 종합적인 교육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제주바다는 푸른 창살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였다.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제주사람들은 흉년이 들어도 배를 타고 본토로 갈 수 없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제주에 대해 적극적인 구휼정책을 펴게 된다.

제주구휼은 역사문헌에서도 매우 많은 양이 확인된다. 조선시대 제주구휼에 관해 최초 기록은 조선 태종 5년 李愬를 보내어 쌀과 콩 1천석으로 진휼한 것이다.⁸⁾ 조선전기에는 태종·세종·중종·명종 대에 진휼한 기록이 보인다. 기록상으로 볼 때, 조선전기 제주진휼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행해졌다. 즉 천재지변이나 왜침이 있었을 경우였다.

8) 『太宗實錄』 5년, 12월27일조. 賑濟州飢. 遣敬承府少尹李愬, 以米豆一千石賑之, 又以米豆一千五百石市馬.

인조 이후 제주구휼에 관련한 사항은 급증한다. 이는 출륙금지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진휼만을 담당하는 賑恤御使도 인조 이후의 시기에 종종 확인된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試才御使 역시 주목된다. 제주신화인 「나주기민창본풀이」 등에서도 제주구휼의 흔적이 확인된다.⁹⁾

『증보탐라지』의 「관풍안」에서도 진휼을 특기하였다. 제주목사인 경우 邊是泰는 진휼을 잘못했다고 파직 당하였다. 李明俊은 진휼을 잘 하여 嘉善大夫로 승진되었다. 李喆模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내어 백성을 진휼하였다. 韓應浩는 진휼을 잘해 제주사람들이 追思碑를 세웠다. 제주관관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盧三錫은 진휼을 잘못해 파직되었다. 南九明, 鄭揀, 李泰斗는 진휼의 공로로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다. 鄭彦儒의 경우도 조정에 조를 요청하여 진휼정책을 펼쳤고, 곡식 1천 섬을 별도로 비축하여 굶주리는 제주백성을 구제하였다. 3년 동안 大同米를 탕감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¹⁰⁾

숙종시기는 소빙하기라고 하여 농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언유 역시 흥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탐라별곡」의 내용에 있어 방어·순력보다는 그 중심이 바로 구휼에 있게 된 것이었다. 이는 주제에 있어서 위민의식 또는 애민의식으로 표현된다.

2. 글과 말의 진상

「탐라별곡」에서 서사가 전환되는 지점은 三姓神을 언급하면서, 제주의 진상품인 말과 굴을 거론할 때이다. 정언유는 구휼과 진상을 구분하여 창작한 것이다. 제주는 변방이었기 직접세 등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어사로 제주를 찾았던 명암 이해조는 ‘세금 밖의 땅이 많다’고 표현한 바 있다.¹¹⁾ 대신 매해 일정량의 진상품을 조정에 바쳐야만 했다. 제주에는 여러 진상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말과 굴이었다.

三聖神 소사난 後 民俗이 淳和하니
歲事도 豐登하고 人畜도 蕃盛하여
집집이 橋林이요 곳곳이 駿馬러라
御乘도 예서나고 祭牛도 예서나니
國畜도 盛커니와 私屯인덜 적을손가

9)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나주기민창본풀이는 선흘리 안씨 맥 조상신의 내력을 구술하는 조상신본풀이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제주의 七年大旱에 백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제주목사가 안씨의 재산으로 나주기민창에서 쌀을 사오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10) 『增補耽羅誌』, 「濟州觀風案」, 정언유 조.

11) 『鳴巖集』, 「賦六十韻. 記島中山川風俗」. 藥有嘗餘草, 地多稅外田.

飛龍갓흔 宛馬種은 各牧場에 가득하고
黃金같은 洞庭橘은 公私園에 香닌난다.

인용문에서 삼성신을 언급한 것은 질박했던 풍속을 말하기 위함이다. 풍년과 풍부했던 물산을 기록한 것은 지금의 구휼과 대비되어 풍족했던 옛 상황을 돌이키는 문학적 표현이다.

귤은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이었다. 귤은 국가제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제사 때에 지방의 진상품을 올려야 국가 제사의 모양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귤이 부패하거나 모자라면, 임시방편으로 다른 곳에 올려야 할 귤을 옮겨서 썼다가, 다시 제주에서 진상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귤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목사들은 과원을 따로 만들어 진상에 대비하였다.¹²⁾ 심지어 귤나무 마다 하나하나 열매 숫자를 세기도 하였다. 개수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관리들의 독촉이 따랐다.¹³⁾

제주목사가 귤을 제 때 못 올리거나, 중간에 부패되면, 추고를 받거나 파직된 경우도 적지 않다. 중종 때 李壽童 목사는 진상하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防護所 안에 과수원을 설치하고 귤과 유자를 재배하여 軍卒에게 이를 지키게 하였다. 영조 때 尹植 목사는 薦新할 때, 靑橘이 부패하고 손상된 일로 파직되었다. 정조 때 尹得達 목사도 靑橘을 진상했는데, 귤이 부패한 관계로 파직되었다. 순조 때 朴長復 목사 역시 翼宗의 魂殿에 薦新用 귤을 올리지 못한 일로 파직되었다. 「탐라별곡」의 작가인 정언유 역시 청귤의 진상과 貢馬의 문제로 제주목사에서 물러났다. 제주에서 귤을 진상하는 것은 자리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었다.

구한말의 기록인 『심재집』에는 조선이 망한 후 귤나무를 베어 버려 종자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¹⁴⁾ 이는 제주목사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백성들도 귤 진상이 버거웠음을 느낄 수 있다. 귤 진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로 인한 제주백성들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말과 흑우 역시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이었다. 「탐라별곡」에서는 귤보다 말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다. 말이 보다 특기할 사항임을 적시한 것이다. 당시 말은 전쟁은 물론 중요

12) 『增補耽羅誌』, 「果園」조. 1526년(중종 21)에 이수동(李壽童)목사가 진상을 위하여 별방·수산·동해·명월·서귀 등 5방호소에 각기 과원을 설치하였고, 1811년(순조 11)에 조정철(趙貞喆) 목사가 동서 외곽을 개축하여 12과원을 설치하고, 각기 과원에 과직(果直)·감고(監考)·수고(首考) 각 1인을 두어서 키우고 기르게 하고 해마다 진공하였다.

13) 『葵窓遺稿』, 「濟州風土記」. 柑子種名甚多.有柑子·柚子·洞庭橘·金橘·唐金橘·黃橘·山橘·柚柑·唐柚子·靑橘, 不可盡知. 本島城中兩處有果園, 所以種柑橘, 發民爲直, 名曰果園直, 以爲進獻之用. 閭家亦多有之, 而秋成結子之初, 自官家家亦摘奸, 算其顆數而成藉, 待熟採取而進供. 其數若縮, 則徵於其主, 故其主有同過客, 不敢下手云. .

14) 『心齋集』, 「海上逸事」. 余按, 自貢獻廢止後, 果園皆廢爲田, 以上諸品, 多是絕種, 而惟唐柚山橘靑橘等數種, 或見於村閭宅畔而已.

한 수송수단이었고,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다. 『詩經』에서 보이듯 말은 국력의 상징이었다. 萬乘・千乘・百乘의 단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키웠다. 당시 제주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말은 원나라를 향했었다. 원명교체기 제주에서 목호의 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 이면은 제주말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조선 초의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말에 관련한 사항이 제법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王事을 못잊저서 驅點을 시작이라
十二場 차례지에 往來하며 보살피니
무리무리 모단 말이 구름인가 비단인가
壯觀 이에 더하기는 山馬點烙이로다
木柵을 구지것고 一時에 몰아내니
나난 듯 썬 노난 듯 巖谷이며 林藪로다
북소새 旗幟 빗헤 山獸조차 너다라니
豪健한 모단 將校 닷토아 재쥬된다
獐鹿도 만커니와 武勇도 壯하도다
一場에 勝혼로움 보기도 조커니와

제주에서는 말을 한라산에 방목하였다. 가을이 되면 한라산에 방목된 말을 한쪽으로 몰아 추리고, 다음 해 말 진상에 대비했다. 이는 제주의 10소장은 물론 김만일 후손들이 관리하던 두원장·사장·미원장에서도 행해졌다. 이렇게 말을 추리는 것을 “山場驅馬”라고 하였고, 제주목사의 주요책무 중 하나였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서도 그 모습이 확인된다. 산에서 말을 추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년에 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거의 매해 실시하였다. 말을 바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 진 것이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주어사로 왔던 李海朝의 기록이 남아있다. “산둔 목장 중에 세 개의 큰 목책을 결속하는데, 한 목책은 둥그런 둘레가 거의 3-40리가 된다. 3읍의 5000여 군인들이 哨를 나누어 목책 안에 서고 둘러싸고 떠들썩거리며 나아가면, 수천마리의 말무리들이 놀라 평원과 절벽사이를 내달리고 돼지와 사슴 등 여러 짐승들도 굴과 숲 풀을 벗어나 중황으로 달아난다. 포수들이 평평 쏘아대면 잡힌 짐승들이 쌓여간다. 목책 옆에 園場 하나를 만들어놓고, 말을 몰아 園場으로 들여놓으면 마치 새가 날개를 상한 듯 물고기가 빠끔거리듯이 모든 말들이 촌촌히 서게 되어 꼬리와 갈기가 서로 맞닿게 되어, 밧질질하거나 물어뜯거나 뛰어오를 수가 없다. 園場밖에 겨우 한 마리가 갈 수 있는 작은 목책을 설치하고, 園場에 들어온 말을 차례로 몰아 작은 목책으로 들이면서 말의 색깔을 기록하고 낙인을 찍어 풀어준다. 뛰어난 말은 봉진할 것으로 따로 둔다. 이것은 실로 섬

에서 큰 일이며, 또한 하나의 壯觀이다.”¹⁵⁾ 당시 본토사람들은 산과 들판을 달리는 수많은 말을 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한 곳으로 몰아 추리는 작업 역시 그랬을 것이다. 이해조가 기록한 것은 지금도 몽골유목민들이 양을 추리는 방식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해조는 장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제주의 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말은 나라에 바쳐야만 하는 진상품이었다. 특히 제주도의 목장을 관리하는 목자들의 삶은 비참하다 못해 참혹함 그 자체였다.

이형상은 팔도의 목장과 다른 제주목장의 목자들의 상황에 대해 개탄한바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자는 公賤으로 1200명이 있고 계절에 관계없이 번을 섰다. 손상된 말은 목자들이 부담하는데, 1년에 말 10마리정도를 갚는 경우도 있었다. 말 값을 상환하기 위해 목자들은 처자를 팔았고, 처자가 없으면 부모를 팔고, 동생이 없으면 자신을 파는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의 풍속이 되어버렸다. 이는 목민관으로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¹⁶⁾ 말에 관련한 사항은 병와 이형상도 첫 번째로 언급한 사항이었다. 그 만큼 제주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다. 이는 광해군 때 유배생활을 했던 李健의 「제주풍토기」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반백년 넘는 기간 동안 제주백성을 누르던 변함없는 고통이었던 셈이다.

정언유가 「탐라별곡」에서 굴과 말을 거론한 것은 결국 제주목사의 임무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주백성들의 고충을 표현한 것이다. 이 역시 관리로서의 애민의를 표현한 것이다. 정언유는 제주목사로서의 제반 임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孤臣의 숨은 근심 到處에 뒹쳐시니
어느 깨 順風만나 險海를 利涉하여
이곳에 物情 民憂 細細히 알외고져

- 15) 『鳴巖集』, 「驅馬篇」. 山屯牧場中, 結三大木柵, 一柵周回幾至三四十里. 三邑五千餘軍, 分哨列立於柵內, 圍遶謹噪而進. 數千馬羣, 駭驚奮迅於平莽絕壑之間, 猪鹿雜獸, 亦失其藪穴, 縱橫奔逸, 砲射亂發, 所獲委積. 柵傍結一園場, 驅馬入園場中, 如鳥鰕而魚喁, 萬足簇立, 尾鬣相磨, 不能蹄嚙, 騰蹕. 園場外又結小柵, 僅容一鬣, 入場之馬, 以次驅入小柵, 記其毛色. 點烙而還放, 擇其駿者, 別置封進. 此實島中巨役, 而亦一壯觀也.
- 16) 『瓶窩先生文集』, 「濟州民瘼狀」. 一, 八道牧場, 多少不等, 而皆有位田, 且不立番, 春秋點馬之後, 通計故失之數, 許多戶保, 惠伊分定, 牧子之每年所徵, 多不過木疋, 少或止米斗, 而田畝所穫, 綽有餘裕. 故其生可保, 其價易辦, 而本島則不然. 七千六百餘馬, 六百二十餘牛, 散處於六十三場之內, 牧子一千二百名, 皆以公賤, 隨闕充定. 既無位田, 且甚貧殘, 毋論四時, 分番守直. 斃馬中皮張現點者, 雖不責徵, 三百餘里草樹中, 或有過時腐傷者, 或有禽獸啄食者, 或有皮存而標無者, 則并與遺失者而責立. 一人之一年所徵, 或至十餘馬, 此是他道牧場所無之役, 而赤立之民, 無以辦出, 終至於賣父母鬻妻子雇當身賣同生之境, 世安有如此風俗乎. 無妻子則賣父母, 無同生則雇當身. 前賣未贖, 後馬又徵. 割情忍愛, 槌胷叩地, 此時此狀, 天亦變色, 古罕今甚, 展轉成俗, 以聖朝貴人賤畜之義觀之, 則殘害天倫者, 固爲大變, 習而不以爲怪者, 尤是大變.

인용문에서 정언유는 신하로서 이곳의 사정을 소상하게 임금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제주백성들의 괴로움은 물론 그간의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 하겠다. 그 세부사항은 제주방어, 제주백성의 구휼, 말과 굴로 대표되는 제주 진상과 그 이면에 도사린 백성들의 힘든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제주목사로서 실행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목민관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하겠다.

IV. 제주목사의 풍류와 그 시선

「탐라별곡」의 마지막 부분은 앞부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앞부분이 제주목사의 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뒷부분은 개인의 느낌을 풀어놓은 느낌이다. 다음은 「탐라별곡」의 마지막 부분이다.

默默히 혼자 안저 百가지로 思量하니
술이나 盡醉하여 한 켜나 이즈리라
一杯一杯復一杯를 無盡無盡 먹었스니
睡鄉인 듯 醉鄉인 듯 客懷世慮有無間에
바람길 畫角聲이 玉簫仙을 接하난 듯
恍惚한 이 내몸이 華胥天에 와 있던가
塵客인가 仙官인가 거 뉘라셔 分辨하리
어와 이렇저렇 지내니 萬斛 실음 다 푸러바리거라

먼저 작품의 마지막에 이런 성격의 내용을 배치했다는 것부터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임금에게 알리고자 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애민정신으로 정리될 수 없다. 기존연구에서 이를 의식의 ‘균형’에 맞추어 해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보던 당시 관료와 지식인들의 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즉 당시 제주 사람들이 편히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자신의 책무와 함께 풍류의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인용문의 내용은 술을 마시면서 신선의 풍모를 생각하며 세상걱정을 모두 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一杯一杯復一杯”는 이백의 「山中對酌」의 한 구절이다. 주지하듯 이백은 도가 사상에 심취했던 인물이다. “睡鄉”·“醉鄉”은 관리로서의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華胥天”은 華胥의 하늘이란 의미이다. 『列子·黃帝』출전이며, 화서씨의 나라를 뜻이다. 華胥씨의 나라는 배·수레가 가지 못하고 신선들이 노니는 곳이다. 나라에는 왕도 없고, 사람들도 욕심없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곳이다. 후에 이상향을 뜻하는 곳으로 사용된다.

신선 분위기의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언유는 분명 유가사상을 견지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신선사상을 표현했다기보다 선비의 풍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목민관의 풍류가 제주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해야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언유 말고도 목민관으로서 풍광이 좋은 곳마다 관리들이 신선과 풍류를 찾았던 경험의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라산·용두암·등영구 등 풍광이 좋은 곳마다 여러 관리들은 신선과 풍류를 떠올렸다. 이런 감정은 제주목사의 것만은 아니었다. 제주관관은 물론 잠시 제주를 들렀던 어사들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전기 제주목사 임형수는 제주 용두암에서 “고요한 굴에 서린 용이 머리를 치켜드니 풍류를 좋아하는 절제사는 응당 탐낼만하다¹⁷⁾”라 하였고, 登瀛丘에서 홍중징 목사는 “꽃사이로 봄노래 피어나면 난학이 아스라이 날아든다네.”¹⁸⁾라 하며 제주에서의 풍류를 노래하였다. 한라산에서는 장쾌한 마음과 신선적 풍류가 보다 짙게 나타난다. 제주관관인 金綴의 「登絶頂詩」에서는 “학을 타고 현포로 가는 길 헛갈리지 않고 봉황피리 불며 적송자를 기다린다. 이제부터 신선술을 배울 것이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늦어도 아쉬워하지 않으리”¹⁹⁾라고 읊었다. 金綴의 한라산 유산기에서도 이런 시각이 멋지게 표현되었다. 심지어 노인성과 같은 곳은 유배인들까지도 이런 감정을 갖는다.²⁰⁾ 즉 당시 풍류공간으로서 제주를 바라보는 정언유의 시각은 제주관리들은 물론 당시 지식인들이 제주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한 시각이었던 셈이다.

풍광이 좋은 곳뿐만 아니라 제주관아에서도 이런 흥취가 확인된다. 어사로 제주에 왔던 김상헌은 관덕정에서 “관청 뜨락 굴 숲에 가을 들면 보기 좋고, 한라산에서 밤이면 들려오는 신선이 탄 학의 소리. 무슨 인연으로 마고선녀를 만나, 상전이 벽해 된 아득한 곳 볼 수 있으려나”²¹⁾ 라고 노래하였다. 목사의 직무실인 延義閣의 현판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²²⁾

이를 통해 보자면 제주에서 풍광 좋은 곳은 물론 관아까지 모두 이들의 풍류 장소였던 셈이다. 즉 제주도 자체가 풍류를 느끼는 공간이었고, 이는 제주목사 정언유의 것만이 아닌 제주관인문학을 관통하는 한 양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錦湖遺稿』, 「龍頭石磯」. 幽窟龍蟠爲舉頭, 應耽節制好風流.

18) 訪仙門 磨崖刻. 石竇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來.

19) 『增補耽羅誌』, 「登絶頂詩」. 鶴駕不迷玄圃路, 鳳簫留待赤松期. 從今欲學滄霞術, 歸去人間莫恨遲.

20) 『林白湖集』, 「夜與僧話, 語及老人星, 僧言住此近二十年, 尚未得見. 但秋末冬初, 有星僅如啓明, 出極纔數丈而沒, 別無異星云」; 『桐溪集』, 「偶吟」; 『霽山集』, 「和晉兒南海歌」; 『悔軒集』, 「老人星歌」.

노인성에 대해서는 이현정(2020)의 연구가 참조된다.

21) 『南槎錄』, 官舍橘林秋後色, 擎峯笙鶴夜來聲. 何緣共看麻姑老, 坐見桑田極望平.

22) 『增補耽羅誌』, 「官衙」. 제주관아를 표현한 시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회각인 경우, 李元鎮은 ‘可但人間傳吏隱, 只應天上錄仙才’라 읊었고, 崔啓翁 역시 ‘海中仙府靜無喧, 鶴舞空庭日欲昏’라고 하여 신선적인 운치를 자아내었다.

제주에서 이런 풍류가 나타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넓고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제주도라는 지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지형적인 원인으로 오기 싫어하는 목사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²³⁾ 제주도가 낯선 공간이지만, 조금씩 동경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둘째, 출륙금지령 이후 제주도의 왕래가 다소 침체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관리를 비롯한 본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왕래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제주도에 대한 구휼정책이 지속되었기에 제주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건너는 제주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주에 대한 신비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 표류담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정환국, 2017a; 2017b; 2019). 바다 너머 세상인 제주를 보고 왔다는 것 자체가 풍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제주도 내 곳곳에 전하는 신화와 전설 역시 풍류를 돋우었을 것이다. 목민관들의 제주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글을 짓기 전에 제주도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적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들은 본토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천지 느낌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탐라별곡」인 경우, 기존 기행가사의 영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철의 「관동별곡」의 경우도 강원도 관찰사로 돌아보면서 지은 작품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은 내부의 시각에도 영향을 끼친다. 제주사람이 지은 「영주십경시」·「영주십경가」에서도 제주를 풍류공간으로 인식한 부분이 확인된다(김새미오, 2020: 375~400). 이는 제주도 내외 사람들 모두 풍류공간으로 제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나오며

본고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제주목사라는 관인문학의 관점과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탐라별곡」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제주목사의 위치를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해있었다. 그렇지만 지리적 관계로 제주목사가 주관하여 처리·보고하였다. 조선시대 목사가 정3품의 관직이었지만, 제주는 수군방어사의 직책이 더해져 종2품 아문의 관직으로 승격되었다. 방어사라는 軍務로 제주목사는 주로 유능한 무관들이 부임하였다. 정언유는 문관이었다. 이에 문관임에도 무관 임무까지 더해 ‘막중한 책임감’ 토로하면서 글을 시작하였다.

23) 『三邑敎學資料集』, 『左右學堂記』. 近俗, 外重內輕, 今濟州有窠, 求者甚多.

정언유가 제주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힘쓴 일은 구휼과 순력이었다. 순력은 원래 목사의 직무가 아니다. 관찰사의 일이었다. 제주는 전라도관찰사가 돌아볼 수 없기에 그 임무를 제주목사가 대신하였다. 정언유는 순력을 통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굶주린 제주백성들을 구휼하였다. 「탐라별곡」에서는 구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중심이 바로 구휼임을 의미한다.

제주의 구휼정책은 인조 대에 실시되었던 출륙금지령 이후에 집중되어있다. 흉년일 경우에는 제주사람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주구휼은 제주관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었다.

「탐라별곡」에서는 제주 진상품인 굴과 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굴과 말을 언급한 것은 제주목사로서의 진상임무를 특기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제주백성들의 피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었다. 정언유는 제주의 진상품에서 제주 백성의 피와 땀을 읽어낸 것이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비의 풍류를 표현하였다. 이 부분은 짧지만 앞부분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었다. 이 부분의 해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당시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제주에 왔던 관리들은 책임도 책임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풍류라는 시각에서 제주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마지막 부분은 제주관인들이 즐겼던 풍류를 풀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곳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정언유의 「탐라별곡」은 제주관리의 임무와 제주경관에 대한 선비의 풍류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제주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시각은 당시 제주를 바라보던 본토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었다.

앞으로 고민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으로 「탐라별곡」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작시기에 대해서 윤석창은 제주목사시기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별의의가 없는 상황이다. 「탐라별곡」의 마지막에는 “壬午八月初二日夢中作. 公七十六歲, 伊時國值變怪, 臣晦義理之事, 有焉. 撻川之賊鋒, 猝迫, 智不及謀, 龍灣之天步, 遙巡, 勢急逃難”라고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기존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래도 ‘임오년 8월에 지었다’는 것은 해석된다. 임오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었던 해이며, 당시 정언유의 나이는 76세이다. 필체는 동일하다.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었다’는 표현은 전사자가 마음대로 첨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탐라별곡」의 창작시기가 제주목사의 시기가 아니라, 나중에 회고 형식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제주관인문인들의 시선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제주 관인 문인들의

기록들은 종합적으로 정리된 적도 없다. 이런 기록들이 정리되고 연구가 된다면, 제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탐라별곡」 역시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문학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론에서 필자는 제주관인문학의 두 가지의 시각으로 책무와 풍류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자세히 서술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져야할 부분이다. 앞으로 보다 넓은 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_____, 『조선왕조실록』.
『葵窓遺稿』, 한국문집총간 122.
『錦湖遺稿』, 한국문집총간 32.
『鳴巖集』, 한국문집총간 175.
『瓶窩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64.
『迂軒集』,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권경록, 2016, 「李海朝의 濟州 관련 시에 나타난 ‘濟州’의 문화지형과 그 의미 -‘登漢挈山’과 ‘賦六十韻 記島中山川風俗’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0, 283~329.
- 권순희, 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한국학논집』 37, 145~171.
- 김경, 2019, 「南九明 說의 특징과 이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濟州」, 『어문논집』 87, 25~56.
- 김남형, 2008a, 「鄭彦儒의 「耽羅別曲」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6, 349~382.
_____, 2008b, 「우현 정언유의 생애와 시세계」, 『대동한문학』 28, 295~326.
- 김새미오, 2019, 「물에 대한 기억과 그 문화-제주바다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73, 101~127.
_____, 2020, 「瀛洲十景」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매계 이한우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76, 375~400.
- 김익수 역, 1999, 『남유록·달고사·탐라별곡·훈민편』, 제주문화원 향토자료5.
- 김지홍, 원창애 역, 2003, 『제주삼읍교학자료집』,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 김치완, 2012,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59, 131~155.
- 담수계, 2005,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 박수진, 2013, 「「탐라별곡」에 드러난 제주의 문화 공간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2, 129~162.
- 서주연, 2014, 「탐라별곡」의 공간의식에 따른 서술 특징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8, 237~263.
- 서신혜, 2016, 「조선후기 凶荒 현장과 제주 목민관의 생각」, 『온지논총』 48, 113~140.
- 성산포문학회, 2016, 『성산풍아』, 일신옵셋인쇄사.
- 안대회, 2014, 「餘窩 睦萬中の 표류인 전기 「金福壽傳」 연구」, 『한국문화』 68.
- 尹錫昌, 1982, 「耽羅別曲」研究, 『明知語文學』 12, 81~97.
- 윤용택, 2016,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 연구」, 『탐라문화』 52, 223~257.
- 윤치부, 1995, 「탐라별곡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4, 1~6.
- 유정선, 1999,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보라, 2007,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 제주문화 ; 17세기 말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의 성립과

- 《탐라순력도첩(耽羅巡歷圖帖)》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 69-117.
- 이유라, 2016, 「鳴巖 李海朝 漢詩 研究-紀行詩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5, 3-44.
- 이현정, 2020, 「사대부의 제주 체험에 따른 노인성(老人星) 인식의 변화 양상 -조선조 16~19세기 체류 기록과 한시를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65, 171-208.
- 정환국, 2017a, 「동아시아 표류서사 서설-동아시아 해양문화의 단서로써」, 『대동문화연구』 100, 295-320.
- _____, 2017b, 「거인 소재 표류담의 몇 국면」, 『대동문화연구』 101, 103-130.
- _____, 2019, 「조선 후기 표류를 통해 ‘발견된’ 섬, 그 심상지리적 성격」, 『민족문화사연구』 71, 259-287.
- 행문회, 1990, 『심재집』, 제주문화사.
- 현용준, 2007,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Abstract

The viewpoint and responsibility of Jeju moksa reflected in Tamlabyulgok

Kim, Sae-Mio*

This paper analyzes Tamlabyulgok, the work of lyrics by Jeong Eoun-Yoo.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pproach to this work, this paper looks into the work by highlighting the ways by which Jeju is viewed as well as taking the humanity of the perspectives of Jeju. From the humanity of the perspectives of Jeju, I first looks at the status of Jeju moksa (administrative post during Chosun dynasty).

Unlike the other regions' mok, Jeju moksa was chong 2 pum amun (a government officer post which is the junior second grade of the second rank) to which the post of a marine defence officer was additionally imposed. Jeju moksa was mainly in charge of appointing competent military officers. As Jeong Eoun-Yoo being a civil servant, he started to write with a fear for taking a responsibility to defend Jeju Island. Afterwards, Jeong Eoun-Yoo identified the reality of the island by making an extensive tour and relieved starving people of the island.

Tamlabyulgok covered extensive pages discussing relief, which indicates that the key subject of it is relief. The relief policy of Jeju Island was intensely made after the nationl order of banning sailing to the mainland, this being enacted during the king Incho period of Chosun dynasty. Relieving Jeju islanders was fundamentally important to the island's administrative officers. This is because relief policy was directly linked to the islanders' lives. Tamlabyulgok discussed significantly tangerines and horses that were the island's major offerings to the King. Jeong's discussing tangerines and horses can be read as reminding him the offering responsibility as Jeju moksa. This is also for reminding the hard works of Jeju people for the offering duty. From the offering products, he was able to read the blood and sweat of Jeju people. This all leads to the key subject of his loving spirit of people.

The last part of Tamlabyulgok expresses classical scholars' taste for arts. In order to interpret this part, I approaches it from the standpoint of viewing Jeju at those days.

* Jeju Cultural Center instructor

While officers sent to the island by the central government felt significant responsibility as an officer, they also appreciated Jeju in terms of enjoying arts due to Jeju being far away from the central place of Chosun. I interpret the last part as a mind of Jeju island's officers loving and enjoying arts. As information regarding Jeju becoming abundant, such trend in which officers enjoying arts has developed that Jeju is a destination wishing to visit one day. Summarizing synthetically w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we can conclude that Tamlabyulgok by Jeong Eoun-Yoo is the work that describes the duty of Jeju island's officers and classical scholars' loving and enjoying spirits for Jeju Island's landscape.

Key Words : Jeong Eoun-Yoo, Tamlabyulgok, relief, Mokmingwon(governor), Jeju Moksa.

교신 : 김새미오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E-mail: kimsaemio@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0. 07. 15
심사완료일 : 2020. 08. 11
게재확정일 : 2020. 08. 16